

“이시노마키에 사랑방, 편의점, 교회 열리다!”

오아시스교회 조영상 선교사

지금까지 체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제여서 초대를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일본대지진 이후 동북지방에 있는 이시노마키 오아시스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과 존재이유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A. 동북지방의 소개

일본 47 개 행정구역 가운데 센다이를 중심으로 한 동북 6 개현은 지금부터 400 년전 独眼龍(외눈용)이라 불린 대명 다테마사무네가 지배하여 발전시킨 지방입니다.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히데요시와 토쿠가와이에야스 앞에서 처세에 능란했던 다테마사무네는 일본 제일의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시노마키시로 흐르는 키타카미가와 (길이 250 키로)강을 정비하여 동북지방에서 센다이까지 물류운반을 위한 대운하를 만드는 등 모든 치세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침내 100 만석 다이묘가 되어 강대한 센다이한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일찍 서양의 문명과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1613 년에는 이시노마키 쓰키우라에서 다테의 흑선이라 불리는 {산환-성요한} 이라는 목조범선(국보가 되어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신청중; 500 톤급, 길이: 55.3 미터) 만들어 구미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하세쿠라 츠네키가라는 크리스찬 사무라이 일행과 에도와 동북을 대표하는 상인일행 180 명은 태평양을 거쳐 멕시코에, 대서양을 거쳐 스페인과 로마까지 항해하여 스페인 왕과 무역통상을, 또한 로마교황을 알현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기독교선교활동을 인정하겠다는 친서를 전달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되어있어 센다이한이 해양대국이 되려는 시도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614 년 토쿠가와이에야스의 금교령에 의해 기독교 세례를 받은 대부분의 사절단은 박해를 피해 스페인과 필리핀에 남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페인 국왕의 대사가 되어 통역자로서 길 안내역을 맡았던 스페인 ‘세빌리아’ 시민이었던 루이스·소테로 선교사는 일본에 돌아와 선교활동을 계속하던 중에 에도막부에 잡혀 장렬한 죽음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시노마키시는 역사에 빛나는 지난 구미사절단을 미래를 향한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깃발을 내세우고 재난복구의 절정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마사무네의 꿈 구미사절단 400 년 濱田直嗣著) 그리고, 명치초기 일본프로테스탄트교회의 리더 혼다료이찌 本田庸一 (1848-1912 :일본 감리교 초대감독)와 나카타중지 中田重治(1870-1938 :동양선교회 일본홀리네스교회 초대감독)은 아오모리현 히로마에시 출신입니다. 교육자로서 후에는 국제연맹사무차장에 취임한 니토베이나츠(1862-1933)와 아동전도의 개척자가 된 野辺地天馬 (1885-1968 : 일본주일학교협회 교안지/일요학교편집장)은 이와테현 모리오카 출신입니다. 일본 뱀티스트신학교를 설립하고, 관동학원 학장으로도 취임하고 일본뱀티스트 (현 뱀티스트동맹)의 총리가 된 千葉勇五郎 (1870-1946)는 미야기현 센다이 출신입니다. (참고; 크리스천정보 Book) 이러한 지역에 2011 년 3 월 11 일 일본 역사상 최대 피해를 입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 과거 1611 년 12 월 2 일에도 동북산리쿠지방에 대쓰나미가 발생 약 5000 명이 익사)

B. 선교의 정의

“선교는 이교도 사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역, 전도는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역”(J 웨트카일).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 있더라도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R.H. 그라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D.L. 무디)전도와 선교를 동의어로써 사용하는 입장. 복음파에 있어서 아직 뿌리깊은 전통으로 남아있는 듯. “인간성의 회복이나 억압받는 사회로부터의 해방”(리베탈파, 해방신학).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전도보다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둡니다. “선교를 전도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교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서, 처한 영역에 따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전도라 하고 사회적인 구제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이라 부른다”(남아프리카 신학자 D.보슈). 복음파는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1974 년 로잔세계전도회의에 있어 선교를 전도와 사회적 책임으로 나누어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파교회의 한 지류인 근본주의는 교회사명은 전도뿐이며 사회적 책임을 교회사명 중에서 배제하는 것을 부르짖어 왔습니다만 사회적 책임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전도가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과 동시에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개별적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통합일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 복음파의 입장입니다.

1982 년 미국에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양자는 서로 파트너란 것과 사회적 책임은 전도를 위한 먹이도 아니고, 전도의 결과로서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양자는 개별적인 개념이며 서로 파트너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전도의 가교가 되고 또한 파트너가 되는가”에 관하여 훨씬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사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세계선교란 우리들을 향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믿음은 사랑의 순종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인 것이다”(제 3 회 로잔세계선교회의 2010 년 케이프타운 결의표명).
선교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 행하게 하는 모든 것”(존 토트)

C. 일본교회는 문턱이 높다

일본교회는 문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높다고 생각해요?}물으니까 어느 피해지역 주민이 “감옥의 담보다 높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합니다. 지 친자 무거운 짐 진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의 안식과 치유를 찾아 들어오기 쉬운 교회여야 하는데 왜 언제부터 교회가 담을 쌓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을까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일까요? 밖에서 보면 낮은 종교의식이 있어서 일까요? 요구되는 허들이 높이 느껴지고 실천할 수 없어서 일까요? 너무 성스러운 장소라는 인상 때문일까요?

2011 년 3 월 11 일 센다이 앞바다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1000 년에 한번 일어날까 한 이상재난 예상 밖의 자연재해로 지금까지의 생활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해안가에 줄지어 있던 집들이 쓰나미에 쓸려나가고, 가족과 친구가 한 순간에 없어지고, 의식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재난 4 년 가까이 된 지금도 70 퍼센트의 피해자는 토끼집 같은 가설주택에서 몸을 의지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실이나 체육관등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목숨만은 다행히 살았다. 모두가 모든 것을 잃고 서로 돕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져 있던 장벽은 무너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연대감, 생명, 서로 돕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골의 절이나 기독교회도 그 쓰나미와 함께 높이 막혀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평평해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쉼터가 되고 구조물자를 나누어 주는 기지가 된 교회는 지금도 마을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 5;16). 지금까지 높다고 느껴졌던 교회 문턱이 갑자기 낮아지고, 주민들의 의지할 수 있는 장소, 마음이 편한 장소가 되고, 세상사람들이 들어오기 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국도 45 호선을 따라 피해지 어디에 가더라도 남북 450 킬로미터 범위에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었군요. 교회로부터 참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그리스도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절이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통적 이교문화가 뿌리깊게 영향을 미치는 시골이야말로 교회는 지역사회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필요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누구든지 고민하는 사람은 들어오기 쉽도록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교회는 재난을 통해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나가 되어 어려운 피해주민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피해지의 모든 필요를 채워 왔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주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교회가 될 때는 선교접점이 언제나 오픈도어가 된다는 것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방문함으로 교회가 자연스럽게 복음의 위력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D. 성육신의 원리; 인카네이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자녀인 인간에게 빌립보서 2 장 6 절에서 8 절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가 되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 눈높이로 사귀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달려온 피해지에서는 주민들과 크리스천들이 함께 고통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웃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피해지역 지원활동을 하는 중에 이와테현의 미야코라는 곳에서부터 후쿠시마 이와키까지 연안도시를 돌면서 일본각지 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크리스천 봉사자들이 재빨리 달려와 봉사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월 13 일 후쿠시마원전 멜트다운사고에 의해 구미의 선교사들과 한국선교사들에게 동경에서 서쪽방면으로 피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와 크리스천 봉사자들은 눈물로 사랑의 구제활동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흘러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인은 저변에서 사는 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크리스천이야말로 고독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 소외 된 사람 병든 사람, 슬퍼하는 사람의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의 99 마리 양을 두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입니다.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 땅끝까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일본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철저히 사랑을 나타내 갈 수 있을 때 커다란 부흥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E. 이시노마키 오아시스교회의 세 기둥

1. 식탁공동체

이시노마키 오아시스교회는 아직 십자가를 정면에 높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마일간판 아래 지역부흥센터 *오차코하우스 오아시스라는 간판의 건물입니다. 이전 약국건물이었으나 쓰나미로 전파하여 수리한 것입니다. 종교시설이 아닌 것 같은 일반 커뮤니티센터입니다. 누구나 들어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 자연스럽게 고충상담도 할 수 있는 말을 걸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지역주민 누군가가 함께 식사를 하는 즐거운 장소입니다. 시골주민들은 인정이 있어서 산, 바다, 밭에서 나는 식 재료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게 맛있는 식탁이 됩니다. 배가 부르면 마음도 정신도 풍요로워 집니다. 입이 즐거워지면 마음도 열립니다.

2. 봉사공동체

봉사내용이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지난 4 년간 약 200 종류의 봉사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원물자배포, 쓰레기청소, 해체작업, 가재도구제공, 이사돕기, 식사대접, 주거제공, 차 운전, 전화상담, 고충상담, 병문안, 문서배포, 풀깎기, 눈치우기, 도서제공 (어린이 문고운영), 계절별 의복제공하기, 주민중재 역할, 토지이용상담, 새마을조성하기, 가설주택방문, 꽃 길 정비, 물주기,

어부일 돕기, 양계장 돕기 (계분처리, 계란수집), 마을 마쓰리 돕기, 영화회, 독서회, 목수일, 가스펠교실, 심리치료교실, 맛사지, 요리교실, 뜨개교실, 위령제 참가봉사, 주민 활동장소 제공 등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으니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돕는 정신을 배양하고 실행해 갈 때에 주민들의 기쁨이 배가 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예배공동체(배우는 공동체)

전통종교인 불교사원의 가족, 신사의 가족의 일원이면서 기독교의 일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불단과 신단 앞에서 부처님과 조상님께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성경도 불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라는 질문이 튀어나오면 함께 공부해 봅시다 하고 대답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성경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 찬양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희노애락의 인생을 함께 맛보며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일과 일요일의 정기예배에는 15 명에서 20 명의 주민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양육되어질 때 어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희망과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합니다. 참된 친구를 찾고 있는 피해지역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매력 있는 인간성에 동경하며 이끌려 이시노마키 오아시스교회의 성경공부회와 주일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확의 때입니다.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한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무상의 사랑으로 일하는 크리스천들과 만난 피해지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을 떠올립니다. 이 메세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 또한 모든 특권을 가진 일부 크리스천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약한 자들에게 섬기려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야 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교회 예수님을 본받아 무상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 상큐!! 테마송이 생겼습니다

오차코하우스 오아시스는 쓰나미에 의해 파멸적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도로 398(상큐파)호선을 따라 있습니다. 시체와 쓰레기 산이었던 그 간선도로에 먼지를 날리면서 복구의 대형트럭들이 달리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어느 날 성경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를 묵상하며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398(상큐 파!) 상큐! 감사! 하면 파! 확! 하고 마음의 어두움이 날아가고 기쁨의 꽃이 파!! 활짝!! 피지 않나!!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저녁에도 감사, 가족에게 감사, 친구에게 감사, 모두에게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라는 외우기 쉽고 부르기 쉬운 테마송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시노마키 주민을 비롯하여 이곳을 방문한 모든 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반침하로 비가 오면 도로가 관수상태가 되지만 정비한 꽃 프랜터에 물주기를 안 해도 되니까 비가와도 감사합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센 항구도시의 겨울은 고통스럽지만 이 바람이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돈이 되는 귀중한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F. 앞으로의 전망

이시노마키시의 오시카반도에는 하마마치와 우라의 어촌이 전부 미전도 지역입니다. 기독교에 저항이 없는 주민이 많아 키텐이 되는 신자를 육성하여 어민들에 의한 전도가 일어나도록 사역하는 것. 작은 가정교회를 만들어 전 시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많이 생기도록 기도한다. 마을의 복구지원활동 (사회개량운동)에 적극적으로 관계한다. 단순히 박애와 봉사에 멈추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개혁운동을 포함한 종합적 사회개혁운동에 대처하는 것들입니다.